

로버트 바노이 (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9

창세기 2장 - 동산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

3. 에덴동산 ...

b. 정원의 나무들

우리는 창세기 2장을 “ 에덴동산 ”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고 있었는데, B. 3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 b로 이어지는 지리적 위치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먼저 창세기 2장의 본문을 펴서 동산의 나무들과 관련된 성경적 진술들을 잠깐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느니라.”

그래서 9절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3장 3절에서 뱀에게 하와가 대답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 그러므로 에덴동산에는 구체적으로 두 그루의 나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명령이 어겨졌을 때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쫓겨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하여는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 생명나무

그럼 이 두 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개요 시트에 1번 항목과 2번 항목, 1번 항목이 “생명나무” 이고 2번 항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생명나무에 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생명나무라고 불리는가? 본문 자체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텍스트 에서 어느 정도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으며 트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한 양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타락 후에 창세기 3장 22-24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물건을 빼앗을까 하노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파수꾼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생명나무의 길로 가느니라.”

성찬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 - 칼빈

이제 이름의 의미와 이 나무가 생명나무인 의미를 논의한 주석가 중 한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나는 칼빈의 주석에 대한 논평을 통해 칼빈의 주석을 본 적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수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도 그의 성경 해석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통찰력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그들은 여러 면에서 훌륭한 논평입니다.

나는 생명나무에 대한 칼빈의 견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생명나무를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의존을 상징하는 성례전의 상징으로 본다. 이것이 그의 견해를 요약하기 위한 나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지하는 삶의 성찬적 상징으로 봅니다. 이것이 그의 견해의 핵심이다.

제 생각에는 8페이지의 2/3 지점에 있는 3. b. 이하의 참고문헌에 칼빈의 주석서 116~118페이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것이 성찬의 상징이라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칼빈은 생명나무의 성례적 성격을 논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상징과 기념물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나무의 이름을 주시는 이시니라 이름을 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표징과 기념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줄 아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상징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사실이 특이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외부 표징으로 옮기지 않으시며 ,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분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뻗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를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상징이자 기념으로 봅니다. 나무에 내재된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그 영적 현실의 외적 상징으로 인간에게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관점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의존의 표시이자 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은 사람이 순종의 길로 걷는 동안에만 사람의 소유로 남을 것이며, 다른 나무는 그 요구 사항을 표시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뜨렸을 때 그는 생명나무와 그것이 상징하는 나무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칼빈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은 것과 타락 후 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논평할 때 , 그는 183, 184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상징을 빼앗음으로써 그는 또한 상징을 빼앗는다. 그 일이 상징되었다. 주님께서 그에게서 구원의 모든 희망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주신 것을 빼앗음으로써 사람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움을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희생의 속죄가 남았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말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무 전체를 먹어 버렸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생명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도다. 나무에는 본질적인 효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일종의 화학적 특성을 가진 열매를 맺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에는 본질적인 효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 그것을 생명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찬의 상징이 됩니다. 그 상징을 사용하여 인간에게 인봉된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사라지면, 그 것, 곧 생명 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이 사라지면, 그런 다음 기호도 제거됩니다.”

내 생각에 비유는 아마도 완벽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사기에 보면 삼손과 그의 긴 머리를 기억할 수 있으며 그 머리카락과 삼손이 소유한 힘 사이에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표시를 잃었을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 또한 잃었습니다. 나는 나무를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생명을 주는 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찬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칼빈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상징을 박탈함으로써 상징된 것 또한 빼앗는다.” 그는 상징과 의미된 사물 사이의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잃어버린 후에는 그 상징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22절의 표현은 그 나무에 뭔가 고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진술을 읽으면서 내가 방금 말한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칼빈이 그 진술을 정당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의 견해의 가장 약한 점일 것이다. 당신은 그의 견해의 일부가 또한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추방되기 전에 아마도 정기적으로 생명나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

Vos를 읽은 것을 기억해 보면 Vos의 견해는 성찬 상징으로서 Calvin의 견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는 생명나무로 성사적으로 상징된 생명의 원리에 대해 말하며, 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는 질문에 보스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먹지

않았고, 죄에 빠지면 쫓겨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코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마도 그 점에 관한 보스의 결론은 22절의 마지막 문구와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명시적이거나 명확하게 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의 견해가 그 점을 더 정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칼빈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악을 아는 나무에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줄 수 있는 화학적 성질이 내재되어 있었나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요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요점은 시험적인 시험이며 그 시험은 순종에 관한 것이지 열매의 특성에 내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나무 사이에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논평

성례전 전반에 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 개신교 복음주의자들, 특히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성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라틴어 표현인 *ex opere Operato*로 분류되는 성찬식 신학을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 신학에 대한 반작용일 것 *입니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당신이 의식을 통과하면 기계적으로 또는 거의 마술적으로 세례에 관해 이야기하든, 세례에 의한 중생에 관해 이야기하든,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미사와 죄 사함의 예식을 거행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어떤 가치를 갖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의식 행위에 반대하는 성경적 진술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의식은 구약의 의식과 반대입니다 .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아모스 5장, “너희의 제사는 내게 가증하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보다 순종입니다.” 나와 꼭 맞는 그 마음을 원해요. 물론 희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이교주의와 결합된 의식주의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의식을 치르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이 성례전과 관련하여 발전한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성례전에 대한 개혁된 접근 방식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2번 질문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규례니 이는 감각적 표징으로[감각이라는 말은 감각을 의미하며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감각적 표징으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나타내고 인침을 인함이라 신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로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감각적인 표징으로 나타내시고 인쳐서 신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관한 현 시대의 개혁적 견해에는 주의 만찬과 세례라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례와 말씀은 필요성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말씀은 구원에 필수 불가결하지만 성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전은 말씀의 눈에 보이는 표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용어를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질문 : “성찬은 단지 상징일 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실제로 효능이 있다는 전통적인 관점은 어떻습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생명나무가 있는 창세기 2장에 다시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지하는 생명은 상징되었고, 인침이 찍혔으며, 인간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들이 그것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계적으로나

마법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

생명나무 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시작이자 인간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창세기 2장과 같이 생명나무가 있고, 요한 계시록 2장 7절과 22장 2, 14절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 요한계시록 19장. 그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 이것은 새예루살렘 역역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되 매마다 그 열매를 맺더라.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달과 나무 잎사귀들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의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낙원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창세기 2장은 타락 전의 에덴동산이고,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다. 창세기 3장에서 막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열려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22장 14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옷을 빨았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십시오. 7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선생님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씻어 피에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상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생명나무에 다시 접근하는 길을 주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의 용서와 정결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상이자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의미와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의 의미 사이에 큰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는 본질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일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 열매에도 본질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일관되게 보입니다. 삼손의 예는 머리카락 자체에는 본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 특히 3장 22절이나 3장 23절을 과일의 보다 문자적이고 효과적인 역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문제는 그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 있을 수 있다.

2.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a. 창 2-3 가계도의 텍스트

계속 해서 2. 2. 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두 나무에 대한 Vos를 읽었으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 대해 알고 있듯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상당한 양의 토론과 논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름과 관련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에 제공된 정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작은 a. 개요 시트에 있는 내용은 텍스트에 제공된

정보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름하시고 부르시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주님께서 그것에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이미 읽은 17절에서 주님은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논의했던 이 지점으로 돌아가서, 괄호 안에 넣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독이 있는 나무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과일의 화학적 구성의 물리적 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그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고, 그것이 독이 있는 나무라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것은 그가 먹는 것이 금지된 유일한 나무이며, 우리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는 이브의 말에서 이를 취합니다.

나무에 관한 성경적 데이터와 관련하여 나오는 네 번째 요점은 질문입니다. 3장 5절에서 하와의 진술을 읽어 보십시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하와의 말이 아니라 뱀의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문제는 5절에 나오는 뱀의 진술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겠느냐? 사탄이나 뱀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답하고, 그렇다고 말하고, 창세기 3장 22절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3장 22절을 읽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람이 손을 대지 않도록 생명나무를 따라’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추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3장 22절에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해석입니다. 이름과 그 이름과 관련된 진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무의 신화적인 모습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신화적인 견해입니다. Vos는 이것이 성경 자료에 신화적 삽입을 보는 고등 비판적 사고 학파의 특징이었던 견해라고 요약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교 신화에서 파생되었으며 성경 기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람이 자신의 신성한 특권인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신들의 질투, 즉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반영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제 Vos는 신화적인

관점과 그에 대한 대상에 대해 논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동산에 나무를 심으셨고 사람이 그 나무를 먹은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요점이 될 것입니다. 신화적 관점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일부에서는 인간이 동물 상태에서 이성, 인간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이 인간이 동물로 남아 있기를 원했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성적인 상태에서 인간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적인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의 상승으로 이해합니다. 신들은 자신의 특권, 문명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신들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특권.” 보스의 반대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장의 맥락에서 그것은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리적인 의미의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고, 윤리적인 문제이며, 이 신화적 해석은 그것을 정당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보스가 본 나무의 모습

이제 그러한 접근 방식에 반대하여 Vos는 자신만의 해석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Vos의 견해일 것이라는 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시험을 통해 인간을 종교적, 도덕적 성숙의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구이고 본질적으로 그의 견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시험을 통해 종교적, 도덕적 성숙의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도구입니다. Vos의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Vos의 관점에서 그 이름은 중립적이며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름은 중성,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이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없으며 중성입니다. 또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과실이 있는 일이 아니며, Vos의 견해로는 이것이 달성되면 유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그와 관련하여 보스의 관점에서는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으며,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시험 선택의 두 갈래 중 하나를 택함으로써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 나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불순종하고 그 길을 택하여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그의 관점에서 나무는 인간을 시험을 거쳐 종교적, 도덕적 성숙의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길의 어느 갈림길을 택하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31

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Vos의 한 문단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 사람은 이전에 갖지 못한 것을 얻게 되어 있었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반대, 악과 선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배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보호 관찰 선택 중 어느 하나를 택함으로써 어떻게 이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선과 악의 대조가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나타났을 것이고, 선과 악이 충돌하는 유혹의 위기를 통해 그의 마음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알았을 선과 악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타락했다면 선과 악의 대조는 그에게 훨씬 더 생생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선택한 기억된 경험과 선에 대한 기억과 대조되는 악을 행하는 지속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지 가장 날카롭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보스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거나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순종할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그를 종교적, 도덕적 성숙으로 이끄는 수단이다.

Vos의 나무관에 대한 Vannoy의 반응: 자기신격관

좋아,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나는 Vos의 견해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 대한 보스의 이해와 관련해서만 가능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3장 22절에서 주님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보스는 그것이 아이러니한 진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이나 실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Vos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창세기 3장 22절이 아이러니하다고 거부하고 그것이 문자적이고 사실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해석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장 22절이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사람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사람이 먹음으로써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니야. “그는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왜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과실이 있거나 죄가 있는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세 번째 관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신화적인 관점인 보스(Vos)의 관점을 살펴봤고 이제는 제가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고수할 세 번째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기신격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그것을 결정했다면, 내 생각에는 당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에서 “지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결정한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사용되는 매우 특이한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것은 부정사 형태이고, 일종의 동사 명사 개념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22에서 “알다”가 무엇인지 결정한다면 그것은 나무 이름의 명사 형태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체험적 지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사악한 . 즉,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다’

라는 말은 구별하고, 특정하고, 결정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지정하거나 결정합니다. 즉,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을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과 그 날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거기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이것은 광야에서 죽은 세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그 땅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는 그 날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너희의 자녀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특정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엔 그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이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Vos처럼 아이러니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스스로 명시하기 위해 자신을 자신의 규범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지정하다, 결정하다, 지정한다는 의미에서 안다. 그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통찰력과 판단에 따라 살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가치관의 결정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자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찬탈했습니다. 나는 그 시험의 선택에서 쟁점의 핵심은 인간이 자신의 표준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명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나무는 부정적인 성찬이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용어로 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죽음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독립에서 인간에 대한 성례전의 상징으로 인간에게 금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어쨌든 창세기 3장 22절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라는 문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Vos가 “알다”라는 단어에 첨부된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언어학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내가 방금 설명한 관점에 매우 가깝습니다. 나무의 비참한 결과를 예상하는 나쁜 징조입니다. 나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 특정한 견해에 대한 강한 반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그것을 스스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빙크의 나 무관 이러한 이해를 촉진한 사람은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입니다. 나는 그것을 시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가 1900년대 초 네덜란드의 신학자였기 때문에 개혁교의학(*Reformed Dogmatics*)이라는 네 권의 책을 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체계신학은 영어로 번역된 적이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Charles Hodge의 작품은 대략 시기와 범위 면에서 확실히 Charles Hodge의 작품보다 더 나은 작품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조직신학입니다. 그의 3권에서 그가 이 문제를 매우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는 단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을 말하며, 이 능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인간의 소망을 말합니다. . 창세기 3장은 지식의 내용보다는 지식을 얻는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선악에 대한 지식의 본질은 인간이 그것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로 분명히 설명됩니다(창 3:5, 22).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을 율법 바깥과 위에 두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9장 35절, 이사야 7장 16절처럼 독립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발전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여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의 권위와 율법에서 물러나 자기 발로 서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행복을 향한 길을 결정하십시오.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고,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과 판단에 의존하여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창 3:22).” 창세기 3장 22절은 매우 진지합니다. 이것은 보스(Vos)와는 정반대입니다. “매우 진지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은 참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험의 계명에서 자유에 대한 충동, 즉 독립에 대한 갈망을 금하셨지만 인간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타락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 점을 멈추고 내일 여성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Caitlin Schwanda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